

最近 美·日 半導体の 向方

미국 정부는 지난 4월 17일 일본 정부에 대해 「작년 9월 美·日 양국이 체결한 半導體 협정을 위반하고 있다」면서 通商法 301條를 강권 발동, 「일본의 對美電子機器 15개 품목의 수출에 총 3억弗의 관세를 인상」하는 보복조치를 단행했다.

그 당시 일본 측은 미국 측에 대해 「미국은 사실을 오인하고 있으며 너무 결론을 서두르는 느낌」이라고 항의하는 한편 通産省 간부들을 워싱턴에 파견하여 미국의 보복조치를 회피하는 외교적 노력을 기울이기도 했으나 무위로 돌아갔고, 결국 美·日 半導體 貿易은 큰 시련을 겪게 되었다.

이에 美·日 半導體를 둘러싼 經緯와 향후 美·日半導體의 向방을 알아보기로 한다.

美·日間の 반도체 마찰은 SIA(美半導體工業會)가 설립된 77년 이후 계속되었다고 하겠으나 미국 측의 주장이 격해지기 시작한 것은 半導體 不況이 일어나면서 부터라 할 수 있다. 83년 10월, 美·日 尖端技術作業部會·半導體小委員會에

서 共通 드래프트에서 합의를 보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空前의 活況 속에서 마찰은 표면화되지 않았다. 그런데 85년에 들어서면서 상황이 곤두박질, 이에 따른 각종 IC의 가격이 하락하면서 6월, SIA가 일본의 반도체시장 閉鎖性을 이유로 1974년 美通商法 301條(旧 公正貿易 慣行에 對한 報復措置)에 의거, 提訴한 것이 발단이 되어 그후 美国 메이커에 의한 덤핑 提訴가 잇달았고, 不況의 심각성과 비례하여 마찰도 심화되었다. 그 동안 86년 8월 이래 美·日 양정부에 의한 半導體 交涉은 이례적으로 1년 가깝게 질질 끌어 通商摩擦의 큰 요인이 됐으나 작년 7월, 미국제 반도체의 對日 수출 증가책과 日本製 半導體의 對美 덤핑 방지를 위한 「가격 감시제도」의 창설 등이 최종 합의되어 9월에 정식으로 美·日 半導體 協定이 체결되었다.

1. 生産技術과 品質管理

이 협정에서는 일본의 IC가 국내의 시장에서 크게 강세를 보이고 있는 것은 뛰어난 생산기술과 품질관리이며 일본시장은 개방되어 있다는 일본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아 물론 이 협정에서는 日本시장에서 미국제품의 쉐어가 확대되고 미국 반도체 산업이 영향을 받지 않는 일본의 수출을 요구하는 내용이 되었다. 이에 일본 메이커들은 「협정 내용에 대해서는 기업 입장에서 말하고 싶은 것이 많다」(関本忠弘 日本電氣 사장)고 주장하기도 했으나 심각한 미국 측의 위기감앞에 일본 측이 양보한 격이 되었다.

또 동협정의 특징은 美·日 정부에 의한 일본제품의 엄격한 가격감시와 미국제품의 日本시장에서의 쉐어 확대 약속이라는 전에 볼 수 없는 管理貿易體制를 취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리하여 협정이 합의된후 당장 EC로부터 동협정이 GATT 위반이라는 의견이 발표되는 등 협정 자체를 의문시하는 의견도 나왔다.

나아가서 동협정의 가격감시 시스템의 도입으로 미국의 컴퓨터 메이커 등 수요자는 이미 美·日이외로부터의 제품 조달을 생각하고 있다는 實例 등도 지적되었으며 「가까운 장래 동협

정은 붕괴한다」는 견해도 많았다.

그러나 이같은 갖가지 의견이 속출한 美·日 반도체 협정도 일본 측으로서는 美·日 通商 摩擦의 파고가 높아지는 가운데 半導體에서의 早期妥結로 마찰이 다른 곳에 飛火하지 못하게 하는 일본 정부의 속셈도 있고 하여 日本 半導體 業界도 할 수 없이 이에 합의하지 않을 수 없었다는 의견도 있다. 그런데 2月이 되어 미국 측은 ① 그레이 마켓에 의한 덤핑 수출 ② 市場 접근이 개선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를 내세우면서 美·日 半導體 協定違反이라고 몰아세웠고 급기야는 보복조치로서 電子機器 등 15개 품목을 선정하는 등 예상외의 사태로 발전된 것이다.

「自由競争과 管理貿易은 兩立하지 않는다. 장사가 목적인 이상 저렴하게 구입하여 돈을 벌려는 사람은 반드시 있다. 半導體만이 아니라 그레이 마켓의 존재는 없어지지 않는다.」(일본의 대형 반도체 메이커 대표)는 것이 일반적인 經濟原理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미국 측이 제3국 시장에서의 덤핑, 이른바 그레이 마켓의 존재를 지적, 협정 위반이라 제소하자 일본 通産省은 지난 2月, 美·日 半導體 摩擦에서 초점으로 되어 있는 256K DRAM의 생산을 20% 감산하도록 일본의 대형 반도체 메이커에게 지시했다.

이것은 생산과잉으로 국내시장에서 남아도는 製品이 정규 루트를 통하지 않고 제3국에서 저렴하게 팔리는 그레이 마켓을 源泉的으로 개선하겠다는 목적에서이지만, 일본 반도체 메이커도 긴박감이 감도는 마찰 문제를 배려하여 통산성의 지시에 따르는 자세를 보였다.

2. 그레이 마켓

나아가서 일본의 각 반도체 메이커는 代理店 측에 대해서도 그레이 마켓으로 통할 우려가 있는 대리점에는 판매하지 않겠다는 통고를 냈다. 다만 생산조정과 이들의 노력으로 과연 그레이 마켓의 존재가 없어지겠느냐 하는 것인데 앞서 말한 반도체 메이커 대표의 의견을 들을 필요도 없이 어려울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다. 그런데 이를 立証하는 상징적인 사건이 밝혀졌다. 그것

은 3월 18일, 美 半導體 메이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사가 일본 沖電氣工業이 美·日 半導體 協定에 위반하여 메모리를 홍콩에서 덤핑 수출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送狀을 입수했다고 발표, 반도체 덤핑의 증거를 내 보인 것이다. 이어서 日 立製作所의 공급업자 樂信實業公司도 덤핑을 하고 있다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사가 지적했다. 이에 대해 沖電氣工業은 「旧型の 재고를 납품한 것이며 코스트 이하로 판매하는 것은 아니다」고 부인했고 日 立製作所에서도 「樂信實業公司는 당사와는 관계가 없다」고 발뺌하는 등 각자가 변명을 늘어놓았으나 이들은 한결같이 계획된 덤핑, 즉 조작 혐의가 짙은 것이라고 관계자들은 보고 있다.

덤핑을 지적한 마이크론사는 미국의 소규모 반도체 메이커이며 한때 회사를 팔겠다고 沖電氣에 접근한 적이 있으며 현재는 한국의 金星社가 이 회사에 자본참가(5%이하)하고 있다. 送狀을 입수한 곳이 모두 홍콩인 관계로 한국도 이에 개입하고 있을 것이라고 추측하기도 했으나 金星社는 이를 부정했다. 일본내 생산조정에 대해서는 「쌀의 減産에는 정부로부터 지원금이 나오지만 산업의 쌀이라 일컬어지고 있는 半導體의 減産에는 지원금이 나오지 않는가」하는 농담까지 나왔다¹⁾ 한다.

3. 美系企業은 不参加

한편 對日市場 접근문제에 대해서는 美國 레이건 대통령이 對日 報復措置를 채택한데 대해 日本電子機械工業會 佐波正一 會長은 「日本の 각 半導體 메이커는 지금까지 美·日 半導體 協定을 준수해 왔으며 시장 접근문제도 향후 5년간에 半導體 國際交流센터(INSEC) 설립을 위해 300만弗의 자금을 제공하여 해외 半導體 企業의 日本市場 접근이 용이하도록 추진해 왔다. 그러나 協定이 兪効한지 반년밖에 되지 않고 더우기 INSEC도 이제 막 설립된 단계여서 바로 兪効을 거둘 수는 없는 것이다. 또한 외국기업으로 이 INSEC에 참가한 메이커는 겨우 프랑스 기업의 1社뿐이며, 美 半導體 企業은 참가하

지 않았다. 그들이 정말로 일본시장에 적극적으로 참가하려고 마음먹고 있는 것인지 의심이 가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하고 있다.

美·日 半導体 摩擦이 심화된 후 여러차례 지적된 바와 같이 日本市場에서의 쉐어 擴大에는 市場에 맞춘 美 메이커 측의 노력이 필요하다. 과거 미국계 반도체에 대해 품질, 납기, 가격면에서 日本의 半導体 수요자로부터 많은 불만이 있었다. 美·日 半導体 合意이후 지금까지 美国 半導体에 행해진 일본 수요자들의 불만에 미국 반도체 메이커가 얼마만큼 부응했는가를 찾아 보면 外資系 日本法人의 수뇌들 마저도 「아직도 노력이 모자라는 메이커가 많다」고 지적할 정도이다. 또 일본 국내 반도체 메이커 대표들은 「우리들이 미국에 판매하는데 얼마만큼의 사람과 돈을 쓰고 노력하고 있는가를 좀더 美 半導体 메이커는 알아주기 바란다」라고 말하고 있다.

일본의 대형 半導体 메이커는 87년도 수입 반도체의 구입액을 대폭 인상하겠다고 말하고 있지만 구입만 할 뿐 실제로 제품에 사용하는 신뢰성이 美 半導体 製品에 없으면 수입 증가는 일시적인 것이 된다.

4월 9일부터 워싱턴에서 개최된 美·日 半導体 摩擦을 둘러싼 緊急協議는 미국측이 교섭을 종결하겠다고 일반적으로 성명을 내는 최악의 사태로 끝났다. 이때문에 일본 측은 対日 制裁問題 公聽會(워싱턴)에 制裁措置 回避를 위한 최후의 희망을 걸었지만 17일 부서의 「制裁措置 発動」은 불가피한 상황으로 발전됐다.

그러나 미국은 작년말 EC의 농산물에 200%의 報復関稅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하면서도 実施 予定인 금년 1월30일 직전에 철회한 사례도 있었던 만큼 17일까지의 단기간에 보복조치가 철회 내지 동결되는 희망이 전혀 없지도 않았다. 이대로 制裁措置가 発動되면 일본 측이 취할 길은 여러가지가 생각되었다. 일본 측은 「만일 보복조치 철회를 받아내지 못했을 경우라도 한층 미국측과 협의를 계속해 나갈 것」이라는 방침을 세웠기 때문에 制裁措置 発動」이후의 협의 여하에 따라 報復措置 기간을 가급적 짧게 하여 일본측의 피해가 될 수 있는 한 적어지도록 노력

하기도 했다.

그런데 당시 通産省 내부에는 미국측의 조치는 말도 되지 않는다면 단호한 대항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의견까지 나왔다.

이때의 일본의 대항조치로서는 「GATT에 대한 提訴」를 들 수 있다. 미국측의 「半導体対日 制裁措置 発動」은 GATT 2條 (GATT에서 정한 関稅率을 웃도는 課稅의 금지)에 위반하는 것이라고 提訴, 동23조 2항의 多者간 협의로 移行하는 것을 연구하기도 했다. 다만 이 절차에는 빨라야 半年, 늦으면 수년이라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실효성이 없다는 의견이 있었다.

4. 通産省에 일임한 格

한편 GATT에 提訴하는 이상으로 強硬措置라 할 수 있는 美·日 半導体 協定破棄도 생각해냈다. 그러나 협정파기는 對美 關係를 가일층 악화시키는 것이 될 것이라는 의견이 압도적이어서 이의 실행은 어려운 실정이었다.

아름든 일본 半導体 業界는 그후 내국정부와의 교섭 자체를 通産省에 맡겼다. 通産省은 일본업체의 입장을 중히 여겨 정당한 주장으로 교섭을 하겠다고 다짐했다.

美·日 半導体 協定 이후의 미국시장에서의 半導体 품귀와 對日 制裁措置에 의한 報復関稅로 상품가격이 상승하는 등 미국에서 수요자와 소비자로부터 강한 반발이 나왔다.

美週刊誌 타임의 4월 6일자는 「美·日 半導体 摩擦問題」를 특집으로 실었는데 이 가운데서 美国의 소비자는 일본제품의 美市場 進出에 신경을 쓰면서도 단순히 일본제품의 가격을 올리는 것만의 措置에는 의문을 가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同誌가 2월 중순에 실시한 世論調査에서 日本의 무역은 不公正하다고 대답한 사람은 절반에 달했으나 일본이 수출에 성공한 원인은 不公正때문이라고 대답한 사람은 24% 밖에 되지 않으며 품질이 우수하고 가격이 저렴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한 사람은 약 6%에 그치고 있다. 또 미국시장에서 일본제품의 數를 제한해야 한다고 대답한 자는 60%, 보복관세에 대해서는 48%

가 찬성하고 44%가 반대한다는 결과가 나왔으며 对日 制裁措置 發動은 반드시 美国国民의 소리를 반영하는 것은 아니다. 내국 정부는 이같은 미국 수요자의 소리에 또한번 귀를 기울이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5. 일본의 黒字

美·日 半導体 摩擦問題는 1개 반도체 업계의 문제만은 아니다. 배경에는 일본의 대폭적인 貿易黒字가 깔려 있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半導体的 黒字 幅은 微微한 것」(일본 대메이커 대표)이라고 말하지만 黒字問題가 해결되지 않는한 半導体 摩擦問題는 쉽게 해결되지 않을 것이며 또한 반도체와 같은 문제가 또다시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는 보장할 수가 없다. 美·日

半導体 摩擦을 계기로 일어난 美·日 經濟摩擦問題에서는 미국측의 대폭적인 내수 확대책의 실시와 슈퍼 컴퓨터의 정부 조달, 關西新空港建設公事와 新國際通信事業(第2 KDD)에 대한 미국기업의 참가, 차기 支援戰用機 導入, 농산물 자유화 등 많은 요구가 나와 있다. 미국 측이 추구하고 있는 이들 요구에는 競争原理를 벗어난 것으로 생각되는 것도 있으나 일본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다.

이와 동시에 미국측이 「눈에 보이는 효과」를 요구하고 있는 만큼 미국 측의 國際競爭力이 약한 업종에 있어서는 미국 측의 주장을 들어줄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있다.

아무튼 美·日 貿易戰爭 突入은 回避해야 한다는 것이 일본 업계의 바람인것 같다.



주요 경쟁국의 輸出入額 현황

(단위 : 백만弗, %)

국 별	수 출				수 입			
	4 월	전년동월비 증 감 률	1~4 월	전년동기비 증 감 률	4 월	전년동월비 증 감 률	1~4 월	전년동기비 증 감 률
일 본	19,500	9.8	70,939	12.3	11,935	9.4	43,851	△0.1
대 만	4,403	39.8	15,656	35.9	2,812	44.6	9,887	35.9
홍 콩	3,691 (1,864)	37.6 (28.0)	13,322 (6,811)	40.4 (31.2)	3,908	35.6	13,967	39.5
싱가포르	2,383	19.2	8,153	11.7	2,593	22.9	9,411	12.3
한 국	3,568	39.6	12,935	36.6	3,306	26.6	11,474	12.9

※ 홍콩의 ()는 자체 수출액임.

[資料 : 日本 통산성 공보, 台灣 무역통계 제보, 홍콩 통계처, 싱가포르 통계청, 韓國 상공부]

